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0 SPRING

vol.136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새해는 1월에 시작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작은 어쩐지 3월인 것 같아요. 3월에는 많은 시작이 있습니다. 따사로운 별이 창가에 스미고, 오후의 세상은 노란빛을 뿜어내는 ‘봄’이 있는 3월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학생들은 새롭게 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시작은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작의 가치에 주목했지요. 자, 이제 어제와 다른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데 당신 앞에만 서면 얼음처럼 그만 얼어버려요. 속 깊이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이 있어요. 이대로 담아두기엔 커져버린 마음을 이제 용기 내어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나를 좋아하는 일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연습해온 말을 전하고 싶은 3월의 어느 날, 과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CONTENTS

Vol.136
2020 SPRING

2 찰나의 순간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SPECIAL THEME 우리, 연애할까요

- 8 SPECIAL THEME 01 사랑을 생각하다
- 10 SPECIAL THEME 02 당신의 사랑은 영화보다 아름답다
- 14 SPECIAL THEME 03 아름답고 오묘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 18 SPECIAL THEME 04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들

사람과 건강

- 22 건강 읽기 2020년에 바라본 유방암
- 24 인하포커스 마이크로바이옴센터
- 28 영화와 인생 할리우드 키드의 아카데미 정복기
- 32 계절밥상 연둣빛 봄나물, 새로운 봄의 맛
- 34 콧노래 여행 캠핑카 타고 뉴질랜드
- 40 공간 풍경 직원 식당 '인하우스(NHA:US)'

인하, 사람

- 42 인하가 만난 사람 의료평가팀
- 48 인하라운지 10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 50 인하이슈 열 살 맞은 인하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
- 52 특톡 약물상담 항바이러스제
-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 56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20년 봄호(통권 제136호)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미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향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띠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감정은 참 힘이 셉니다. 나조차 모르게 만들어진 마음의 소용돌이가
내면을 바꾸고 주변까지 송두리째 변하게 하지요. 강렬하고
아름다운 감정, 우리의 인생, 이것이 없다면 지금보다 각박했을지 몰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들어줍니다.
따사로운 봄볕처럼 인생에 뿌려진 축복, ‘사랑’입니다.
현실이 고단하고 각박할수록, 삶이 복잡하고 외로워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 받아야 합니다.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살 수 없듯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살게 하고, 웃게 하고, 때로 울리는 사랑.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이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별 좋은 봄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공기처럼 익숙한 사랑에
불을 지피거나,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던 사랑이 세월과 함께
숨 쉬듯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모쪼록 다시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꽃내음이 실려 오는 봄날의 주말, 데이트를 하러 나가봅니다.





사랑을 생각하다

사랑에 빠지면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 쓴다. 상대에게 더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보며 헤어스타일을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다. 대만영화 <청설>의 남자 주인공 티엔커는 수영장에서 만난 양양에게 첫눈에 반한다. 저 멀리 양양이 등장하자, 티엔커는 자신의 스쿠터에 달린 작은 백미리를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 남자가 말했다.
“거울 한 번 더 보고 나왔어.”

우리가 벨어내는 말, 즉 언어의 당도(당의 비율)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문장은 여자의 속을 당도 100% 사과주스를 마신 것처럼 달달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사랑에 빠지는 칠나의 마법을 믿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한 순간은 그때였다. 여자에게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다.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평소 하지 않던 메이크업을 했다. 남자를 향한 마음으로 달아오른 그날 여자의 뺨은 살긋빛 볼터치까지 더해져 한층 더 수줍어 보였다. 여자의 세상은 막 연분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남자의 세상에는 찬란한 봄 햇살이 막 들어온 참이었다.

여자에게 사랑은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 중단연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이슈다. 사랑은 하루의 삶이 고단할수록, 세상이 각박할수록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모진 세상일에 흔들거리고 휘청거릴 때마다 ‘내 편’이 있다는 생각과 상대에게 받는 위로와 응원은 무척이나 든든하다. 사랑을 할 때 여자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에게 사랑은 ‘하루의 봄’ 혹은 ‘인생의 봄’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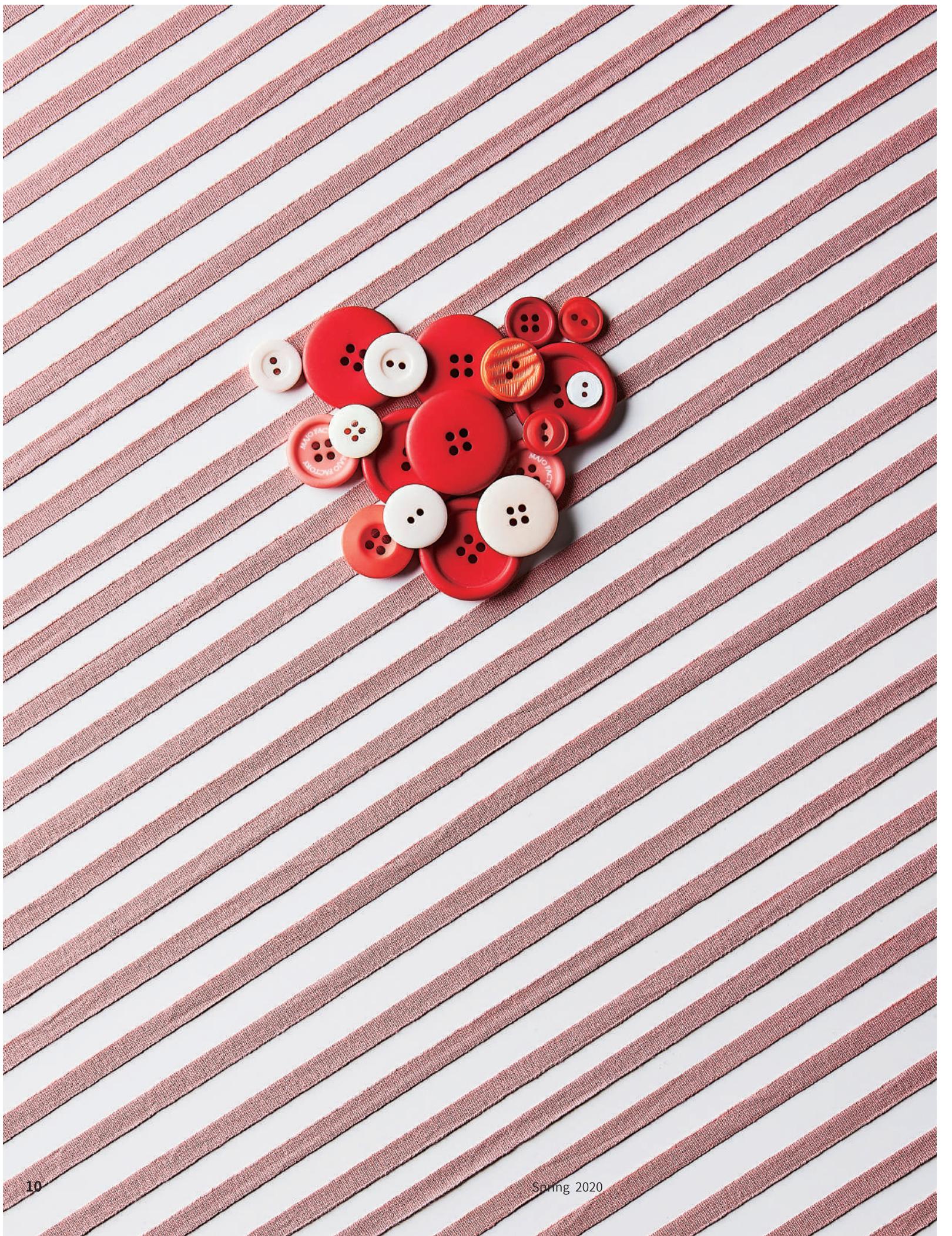
막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는 예외 없이 주어지는 처음의 황홀감을 탐nik하고, 또 예외 없이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들며 공기처럼 익숙해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빈번하게 다투던 그들은 으레 보통의 이별에 합의했다. 한동안 남자는 알코올에 의지하며 무너진 일상을 담담한 듯 견뎠고, 여자는 한동안 슬픔이 둑둥 떠다니는 작은 방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숱한 눈물을 쏟아냈다. 거리를 걷다 부딪치는 바람도 아프다면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던 날도 있다.

사랑의 종착역이 ‘결혼’이라면 그들의 사랑은 실패했다. 하지만 사랑의 종착역이 결코 ‘결혼’은 아니기에 그들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의 한때를 함께했고, 둘만이 아는 세계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였으며, 함께한 시간은 각자의 인생의 순간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 서로에게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했던 날들은 남지 않았나. 어떤 일은 명장면으로, 어떤 일은 편집하고 싶은 장면으로 남았을 테지만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랑이 떠난 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 지난 사랑에서 나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나는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추운 당신에게 나는 목이 마른 줄로만 알고 시원한 물 한잔을 건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내 식대로 배려하고, 내 식대로 걱정했던 건 아닐까. 당신은 내가 아닌데, 왜 난 당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바꾸고 고치려 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미안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다른 누군가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어른의 그것을 하고 싶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인간은 사랑 받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다. 기쁜 날 우리는 샘내지 않고 내 일처럼 축하해주고, 고단한 날 우리는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 그렇게 평생 사랑을 하자.



당신의 사랑은 영화보다 아름답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 편의 소설이며, 우리는 러닝타임 120분의 로맨스 영화 같은 이야기에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이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잊은 지 오래. 어느 틈에 사랑은 사치가 되었을지 모른다. 사랑을 다룬 픽션(fiction)과 함께 희미해진 혹은 잊어버린 사랑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져도 좋겠다.

순수하고 끊임없는 그 시절 사랑

모든 인간은 사랑의 욕구를 가졌다. 어리다고 예외는 아니다. 어릴 적 이성 소꿉친구에게 가지는 감정 역시 각별하다. 10대의 사랑에는 대부분 ‘처음’이라는 말이 함께하고, 대부분 미완으로 그친다. 학창 시절 짹꿍, 옆집 키 큰 오빠를 상대로 벙어리냉가슴 않는 짹사랑을 하기도 한다. 순수 하던 어린 시절의 끊임없는 사랑, 첫사랑은 아련한 기억으로 마음 깊이 고이 남아 있다.

대만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반짝반짝 빛나던 청춘의 시절을 담고 있다. 열일곱 살 커징텅에게는 둘도 없이 막연한 친구들이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된 커징텅과 친구들은 모두 착하고 예쁜 모범생 선자이를 좋아하며 아낌없이 경쟁한다. ‘그때… 너도 날 좋아했을까?’라는 가슴 깊이 묻어놓은 물음과 제대로 듣지 못한 대답 사이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 이뤄지지 않은 첫사랑이기에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건 아닐까. 연인이나 부부는 되지 못했어도 평생 서로에게 각인될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하다.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고, 표정도 풍부하다. 어디 남녀의 사랑뿐인가. 절대적 존재와의 사랑, 가족이나 친구처럼 오랜 세월 걸을 지키는 가까운 관계에서 교차되는 감정도 사랑이다. 특히 기억 할 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 다양한 행동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춘의 사랑이 꽃처럼 피다

성인이 된 20대의 사랑은 조금 더 진지하다. 성인이 되면서 주변 세계가 확장되고, 관계는 팽창 한다. 이성을 만날 기회도 잦아진다. 10대의 첫사랑이 비현실적 성격이 강했다면 20대의 첫사랑은 좀 더 현실적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우리나라에 첫사랑 열풍을 몰고 왔다. 부끄럽고 서툴렀던 스무 살 무렵의 사랑을 담은 이 영화에는 공감하고 추억할 만한 요소가 여럿이다. 영화를 보며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고, 다른 누군가는 옛사랑, 옛 추억에 젖어 슬며시 웃었을 테다. 옥상에서 승민과 서연이 이어폰을 나눠 듣고 전람회의 노래 ‘기억의 습작’을 듣는 장면은 오래전 프랑스 영화 <라붐>의 오마주인 듯 아련함을 끄집어냈다. 소란스런 클럽에서 소피마르소에게 첫사랑 남자가 감미로운 발라드곡을 들려주던 달콤한 장면이다.

영화 <클래식>도 가슴 아픈 첫사랑을 이야기한다. 영화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와 함께 사랑 받았던 작품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첫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편지처럼 가끔 애잔한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울 때 꺼내보자.

이와이 순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도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담고 있다. 하얀 설원 위, 여자 주인공의 “잘 지내고 있나요?”라는 외침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 더 애틋하다.

사랑, 결국 일상에 어우러지다

20대 후반에서 30대로 건너오면 사랑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때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상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연애와 인생의 경험을 제법 쌓아온 덕분인지 외모와 경제력보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 등을 찾는 경향도 있다.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는 결혼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른다.

이제 사랑은 때로 권태라고 느낄 만큼 익숙하고 당연한 감정으로 바뀌고, 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에 둔 상황이다. 스위스 출신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통해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첫 만남부터, 점차 시들해지고 서로를 더 이상 운명으로 느끼지 않는 이별까지 연애하는 남녀의 심리와 변해가는 과정을 철학적 사유와 함께 풀어놓는다. 만나서 사랑하고 질투하고 헤어지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인 듯 공감하게 된다. 현재 사랑 앞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사랑의 절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권태를 겪고 이별하는 사랑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한 소설이다.

<블루 발렌타인>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의대생 신디와 그의 연인 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둘은 결혼하지만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로 지쳐간다.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며 생 각할 거리를 던진다. 지난해 개봉한 <결혼 이야기>는 이혼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파경을 맞은 가족을 현실적이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감정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넓고 깊어진다. 장년과 노년의 사랑은 원숙한 사랑이라 부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는 89세 소녀감성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이들은 어딜 가든 고운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 76년째 마치 연인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의 모습은 누구나 꿈꿔 봤을 이상적인 노부부의 모습으로 꼽을 수 있겠다.

영화 <어웨이 프롬 허>도 노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4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부부 그랜트와 피오나. 어느 날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아내 피오나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 기억을 잃은 피오나가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아무리 애써도 아내의 기억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그랜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아내를 보내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영화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이들이라도 사랑에 대해 깊게 고뇌하고 사색하게 만들지 모른다.

영화 <장수상회>는 노년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함께 그린 작품이다. 고집불통 할아버지 성철과 옆집 할머니 금님의 로맨스를 담고 있다. 평소 까칠하고 벼락 소리만 지르던 할아버지가 고운 할머니 금님 앞에서 수줍게 웃는다. 둘은 함께 춤을 배우고, 영화를 본다.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선물을 전낸다. 70 살 연애 초보인 이들의 모습에서 노년의 사랑 또한 청춘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감정은 결코 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

보편적이지 않은, 조금 이색적인 사랑도 있다. 2011년 개봉한 <우리도 사랑일까>는 행복한 결혼 생활 중 찾아온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중년의 각별한 사랑을 담은 영화다. 로버트 칸케이드는 프란체스카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 이야기가 있소. 한 가지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소.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물론 영화가 그린 사랑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 프란체스카에게 도덕적 잣대를 가져다 댄다면 이 사랑은 옳지 않다. 다만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임을 발견할 수

있고,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사랑은 꼭 한 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데는 굳은 의지가 필요 한 것임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

영화 <캐롤>은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을 담고 있다.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동성의 테레즈와 캐롤은 사랑에 빠진다. 영화는 이



아름답고 오묘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날들이 늘 평화롭고 고요한 건 아니다. 어느 날은 먹구름을 동반한 비바람이 거세게 훌뿌리고, 또 어느 날은 강력한 태풍이 몰아친다. 사랑을 하는 남녀에게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랑을 하는 우리는 왜 다투까.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교수가 전하는 성숙한 사랑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남녀 사이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적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시작되면 둘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안의 이성상을 파트너에게 투사하고, 또한 받아들이며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보다 '나의 무의식적 소망이 충족되는 새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바라보는 상대는 내 마음 안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나의 부족하고 혹은 목마른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존재로 느끼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쌓'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신조차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연인 또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바라는 나, 실제의 나와는 조금 다른 존재로서 나를 눈동자에 담을 테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유연한 태도

언제, 나아가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결혼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콩깍지는 벗겨질 수밖에 없고 왜 나의 맥드리미(McDreamy; 꿈속 왕자님과 같은 완벽한 상대)는 내가 바라고 희망하던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지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쩌면 상대의 마음에서도 '어째서 너는 그녀가 미스 라이트(Miss right; 이상형의 여성)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지?' 하는 의문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한 에릭슨(Erik Homberger Erikson)은 청년 혹은 초기 성인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를 친밀감이라고 했는데, 성인기의 친밀감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근심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친밀감이 발달하려면 부모와 자연스러운 심리적 분리가 진행되고 자신을 더 잘 인식하는 과정(삼차 개별화)이 필요합니다. 즉, 나와 타인에 대한 감각이 발달해야 연인과 공고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친밀감은 편안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나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틀 안에 연인을 끼워 맞추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소망 충족의 완벽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면 동시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열렬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내가 이해하거나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의사소통 과정에 악속 해져야 하겠지요. 복잡하게 말했지만,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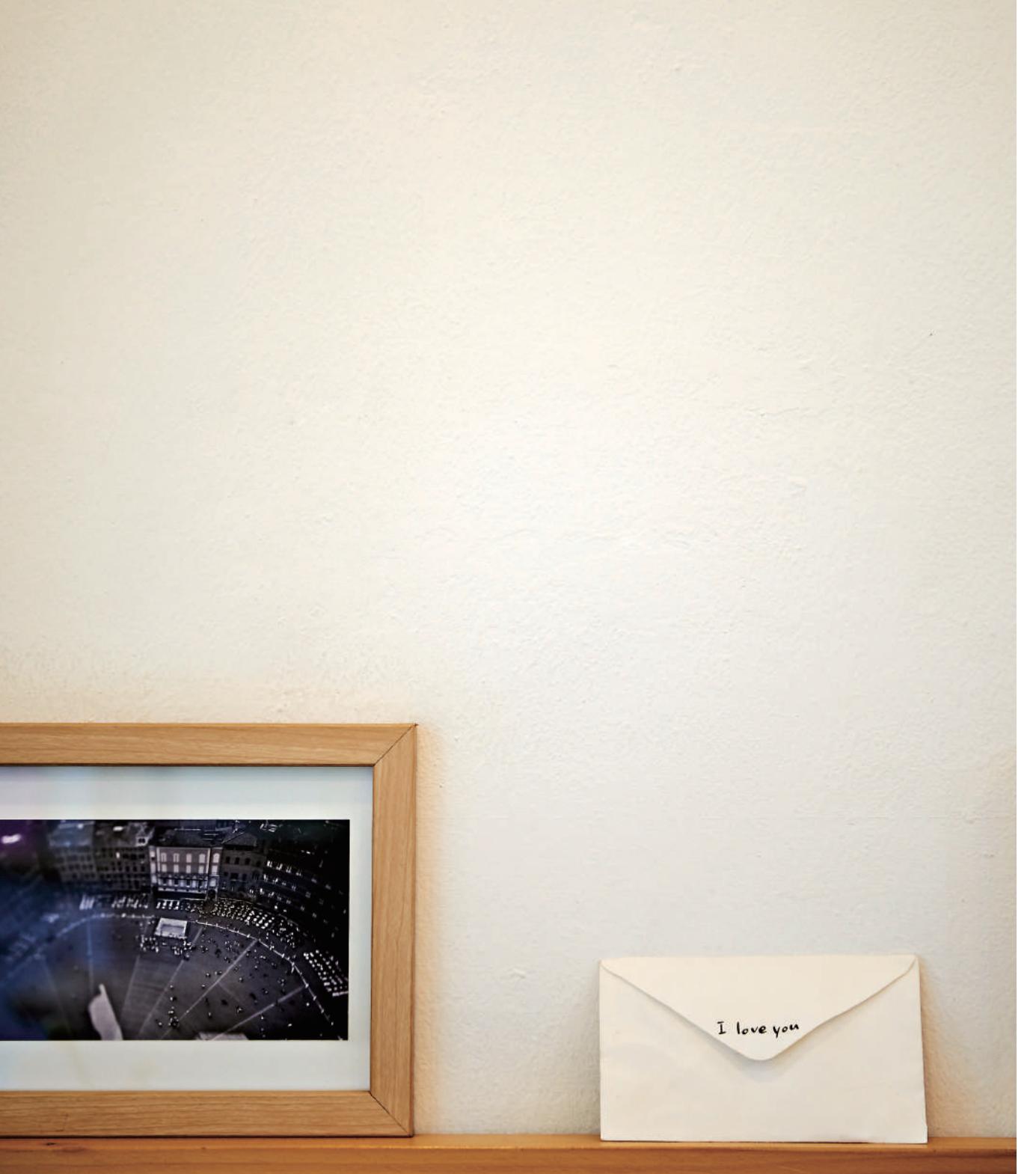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눈동자에 반짝이는 ‘맥드리미’와 ‘미스 라이트’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연인이 되는 순간 그야말로 현실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요.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순간에도 무의식중에 마음 안의 이상적인 무엇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갈등과 소망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어색하지만 반가운 감정의 결합을 통해 상대의 새로운 면을 이해하고, 또한 당면하는 갈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를까

1990년대 초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습니다. 남녀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 까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의 존재처럼 모두 다르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책은 미국의 대인관계 전문가가 썼는데, 아마도 남녀 사이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존재가 너무 다름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논문이 많습니다. 이제는 마치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남자는 공간지각 능력과 운동 능력이 우수하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언어를 통한 기억이나 추론 능력, 사회적 상황의 인지가 뛰어나다’는 내용도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뇌 연결망을 확인하는 영상 검사(학산 텐서 영상, DTI)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천 명에 가까운 남녀의 뇌 영상을 검토해 보니, 남자의 뇌에서는 각 대뇌 반구 내부에서 연결이 더 활발하고 운동을 담당하는 소뇌에서는 좌우 반구를 오가는 연결이 더 활발했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뇌에서는 각 대뇌 반구 내부 연결보다는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연결 구조의 발달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영상 검사와 함께 시행된 행동 평가에서 남자는 공간 처리와 운동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고, 여자는 집중과 기억,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는 평가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여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뇌의 구조적 차이로 설명하는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감정과 정서 기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뇌의 편도체도 크거나 신경세포의 조성이 남녀가 달라서 여자는 상대적으로 감정이 관여된 기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또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가 정말 남녀를 바라보는 전통적(?) 특징 차이로 이어지는 걸까요? 다른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남녀를 대상으로 뇌



영상을 촬영한 결과, 앞서 보고된 특정적인 남녀의 뇌 구조에 일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녀 차이를 찾고자 시행된 수많은 연구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언어나 수학, 인성, 추론 능력 등의 많은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고 나타났지요. 우리가 남녀의 차이로 생각하고 싶은 대다수 특성은 사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또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뇌의 구조부터 다르다’는 가설은 개인의 차이로 해석되는 많은 것을 ‘태생적으로 다른 타인의 문제’로 구분 짓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기 위한 핑곗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소아정신과와 발달심리학에는 ‘핵심 순간(key momen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아기가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던 중 특정 순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이 순간의 감정과 경험을 심리적으로 내재하여 이후 엄마와의 관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핵심 순간’은 매우 짧아서 평균 3~4초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웃어준 기억,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촉감 등은 이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이가 엄마를 향해 느끼는 감정과 시선의 토대가 됩니다. 나아가 엄마의 품을 벗어나 만날 수 많은 관계의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많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나눈 경험처럼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도 특별한 ‘핵심 순간’을 경험하겠지요. 물론 이런 관계의 경험에 항상 유쾌하거나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의 다정하거나 행복한 경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순간에도 되살아나서 감정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충만함, 그리고 상대와 교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특별한 순간은 나의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기억의 원형이 되어 그 대상이 옆에 있지 않은 순간에도 충족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해서 쌓이면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만족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약일지 몰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은, 아마도 자신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세리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인, 소아 정신건강을 진료하고 있다. 맹세리 교수는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유연한 태도를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은 자신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사랑의 과학 :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들

흔히 사랑은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사랑에 빠지면 몸과 마음을
비롯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사랑을 할 때 우리 몸에선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사랑할 때 일어나는 8가지 신체 반응을 알아봤다.



호르몬이 치솟는다

그 사람을 볼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흐른다면 당신은 이미 사랑에 빠진 것일지 모른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우리 몸에선 갑자기 호르몬이 솟구친다. 소위 '사랑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옥시토신, 쾌락을 관장하는 도파민,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대표적이다. 심장을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 또한 상승한다. 이런 다양한 호르몬이 신체 내에서 분비되면서 흥분, 매력, 환희 등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살이 빠진다

사랑에 빠지면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의 영향이다. 특히 연애 초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도파민 계열의 호르몬이 분출하면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에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는다. 옥시토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사랑하면 생겨나는 이 호르몬은 체내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을 촉진해 신체 대사 활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122kcal 적게 먹고, 지방도 9g 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을 덜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보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 아픔을 억누르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그렇다. 코르티솔은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아스피린보다 수십 배 강력하다. 지난 2010년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새로 연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찍은 결과 뇌의 보상 영역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관계의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사랑에 빠지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 중 하나로 주로 행복할 때 분비된다.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관장



하는 호르몬으로 근육, 간, 지방조직 등에 작용해 개체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감이 형성된다

사랑에 빠지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포옹·키스·성관계 등 육체적 접촉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파트너에 대한 애착과 만족감,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남성형 애정 호르몬’이라 불리는 바소프레신 또한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남성은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는 남성적 애정표현이 강해진다.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자기 영역권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중독과도 같은 사랑의 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두뇌를 정밀 촬영해보면 해로인에 중독되었을 때와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남녀 모두에게 성욕을 유발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때문이다.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은 페닐에틸아민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까닭이다. 사랑을 부르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포옹을 해달라고하거나, 성욕을 느끼는 등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호르몬에는 2~3개월이라는 유효기한이 있다. 불 같은 사랑이 금세 사그라드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질병 면역기능을 지닌 T-임파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키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 장수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진다

미국 심장병학회가 남녀 350만 명을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의 기혼자는 미혼자·이혼자 및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보다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 12%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51~60세의 결혼한 커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7%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적인 사랑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건강한 삶을 꾸리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2020년에 바라본 유방암

고령 유방암 환자에 대한 단상(斷想)

앞으로 고령 유방암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령 환자의 유방암은 적절한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생각과 달리 젊은 환자들의 치료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질환이 아니다. 다만, 의사와 환자 모두 유방암이라는 질환을 지혜롭게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점점 더 중요해질 고령 유방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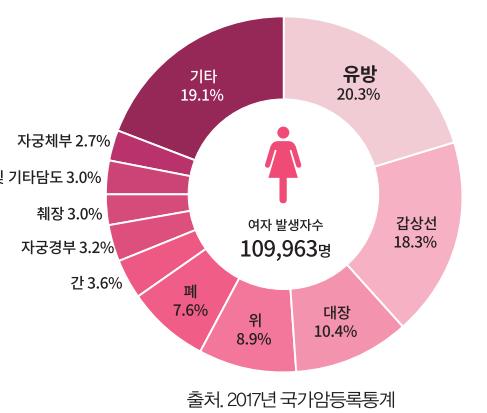
최근 외래에서 만난 환자가 인상적이었다. 74세 유방암 환자인데,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건강하고, 심지어 얼굴은 고왔다. 문득 요즘 고령 유방암 환자가 많은데, 10여 년 전에 보던 고령 환자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9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표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이어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순으로 발생했다. 그중 여성암의 순위는 유방암이 1위이고,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보고됐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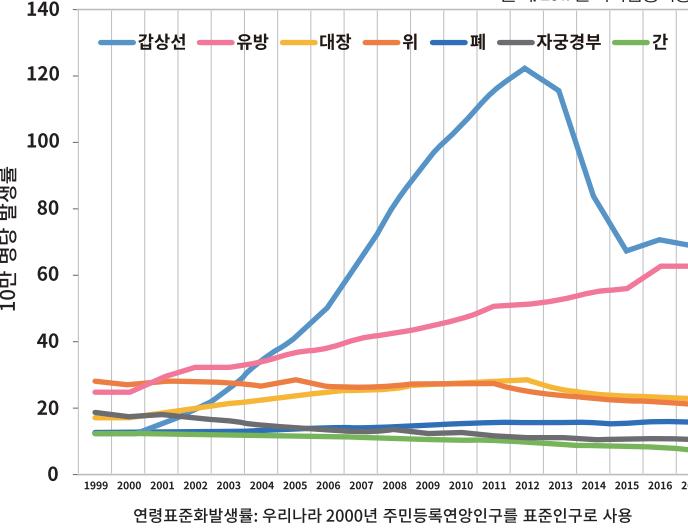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미국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17년 만이다. 다른 국가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고령사회를 준비

여성암 종 발생분율



주요 암종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여자, 1999–2017)

출처.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암종	추이1		추이2	
	발생기간	연간변화율%	발생기간	연간변화율%
갑상선	1999–2011	221*	2011–2017	-11.9*
유방	1999–2002	10.0*	2002–2017	4.7*
대장	1999–2010	4.7*	2010–2017	-3.5*
위	1999–2011	-0.4	2011–2017	-4.2*
폐	1999–2011	1.9*	2011–2017	0.1
자궁경부	1999–2007	-46*	2007–2017	-2.3*
간	1999–2010	-15*	2010–2017	-4.8*

*P<0.05

했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고스란히 의학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질환이 암 질환이고, 특히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질환으로 고령 유방암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진다

유방암에서 고령의 정의는 65세 이상을 말한다. 이 연령대에는 임상 시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치료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고령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해 젊은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든 좀 부족한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고령 환자가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약물의 독성으로 기관들이 기능 손상을 입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체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어, 적절한 용량의 항암제를 주입하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치료를 잘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힘든 항암요법을 시행하기 어렵고, 다행히 시

작하더라도 적절하게 시행하고 종료하기가 힘들다. 최근 이런 현실과 고령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치료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항암제 용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시행하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반면 전이가 된 고령 유방암,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일 때, 신체수행능력평가에서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한 정도 이상의 불편함이 있을 때, 전이 장기가 다수일 때는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다행인 것은 세계적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24개월이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이면서 전이성 유방암이 있을 때 5년 생존 기간이 30.3개월이라는 보고로 보아 고령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젊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고령 유방암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령 환자의 유방암은 적절한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생각과 달리 젊은 환자들의 치료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질환이 아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수행능력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를 적절히 조정할 수는 있지만, 치료불가한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고령 환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유방암이라는 질환을 지혜롭게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 듯하다.



허민희 교수는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유방갑상선외과센터를 찾으면 당일 초음파검사와 세포검사,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빠른 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정기검진이 필수다. 허민희 교수는 "유방암 발병 원인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지방식은 줄이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치료에 주목하다 マイクロバイオセンター

사람의 몸 안에는 수천 억 마리의 장내세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각종 질환의 병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인하대 병원은 마이크로바이옴센터(대변세균종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통해 장내세균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인하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센터에서 시행하는 대변이식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센터를 이끄는 신용운 센터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マイクロバイオセンターを 개소하기까지

최근 인하대병원은 마이크로바이옴센터(대변세균종이식센터)를 개소했다. 그간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장내세균의 변화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주목하고 이를 대변세균이식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왔다.

인하대병원에서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두로 대변세균이식을 통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clostridium difficile) 장염 치료를 시행해왔다. 이외에도 항생제(VRE, CRE) 내성, 과민성대장염, 궤양성대장염 등에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국내외 학회에 참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입원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대변이식술기법의 체계적인 표준화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및 연구정보를 수집했다.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장을 맡은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는 “임상시험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된 각종 질환의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임상에 응용하고자 마이크로바이옴센터를 설립했다”고 개소 이유를 밝혔다.

제2의 게놈으로 부르는 마이크로바이옴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미생물)은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게놈(Genome)의 합성어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 또는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 자체를 말한다.

인체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 미생물을 빼놓고 인간의 유전자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제2의 게놈(Second Genome)’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분야이다. 또한 식품, 화장품, 질병의 치료제 개발에도 사용될 전망이지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제품 개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및 중국의 고의서에도 어린이의 변을 약으로 사용해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동물도 동료의 변을 먹어 장내세균의 구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 질환에서 인체마이크로바이옴의 변

화가 각종 질환의 중요한 병인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중이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에 주목해야 할 때

인하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센터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 있는 원내 연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장내세균의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변세균 이식을 통해 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원내 감염으로 격리 수용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 장염 및 항생제 내성환자(VRE, CRE)의 치료 방법 개발에도 주력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장내세균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민성대장염, 궤양성대장염, 비만, 당뇨, 치매, 아토피, 자폐증, 간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연구 및 임상시험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변은행을 설립하고, 대변이식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대변이식 시술 시 침습적이고 힘든 대장내시경 검사를 줄이기 위해 약물처럼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캡슐을 제작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센터가 해나갈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무해하고 각종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유익한 세균만을 배양해 상용할 수 있는 인공캡슐 개발이 목표다.

Interview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마이크로바이옴센터장)

장내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 신용운 센터장은 1988년 성남 인하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1994년 미국 UCLA 연수 후 2003년부터 인하대병원에서 32년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14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2017년 소화기학회 경인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병원 내과부장 및 건강검진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신용운 센터장과 나눈 이야기.



소화기 질환 진료 시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로 위장관(위장+대장) 질환 환자를 진료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가급적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경청하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사와 환자 관계를 잘 이루고자 합니다.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물론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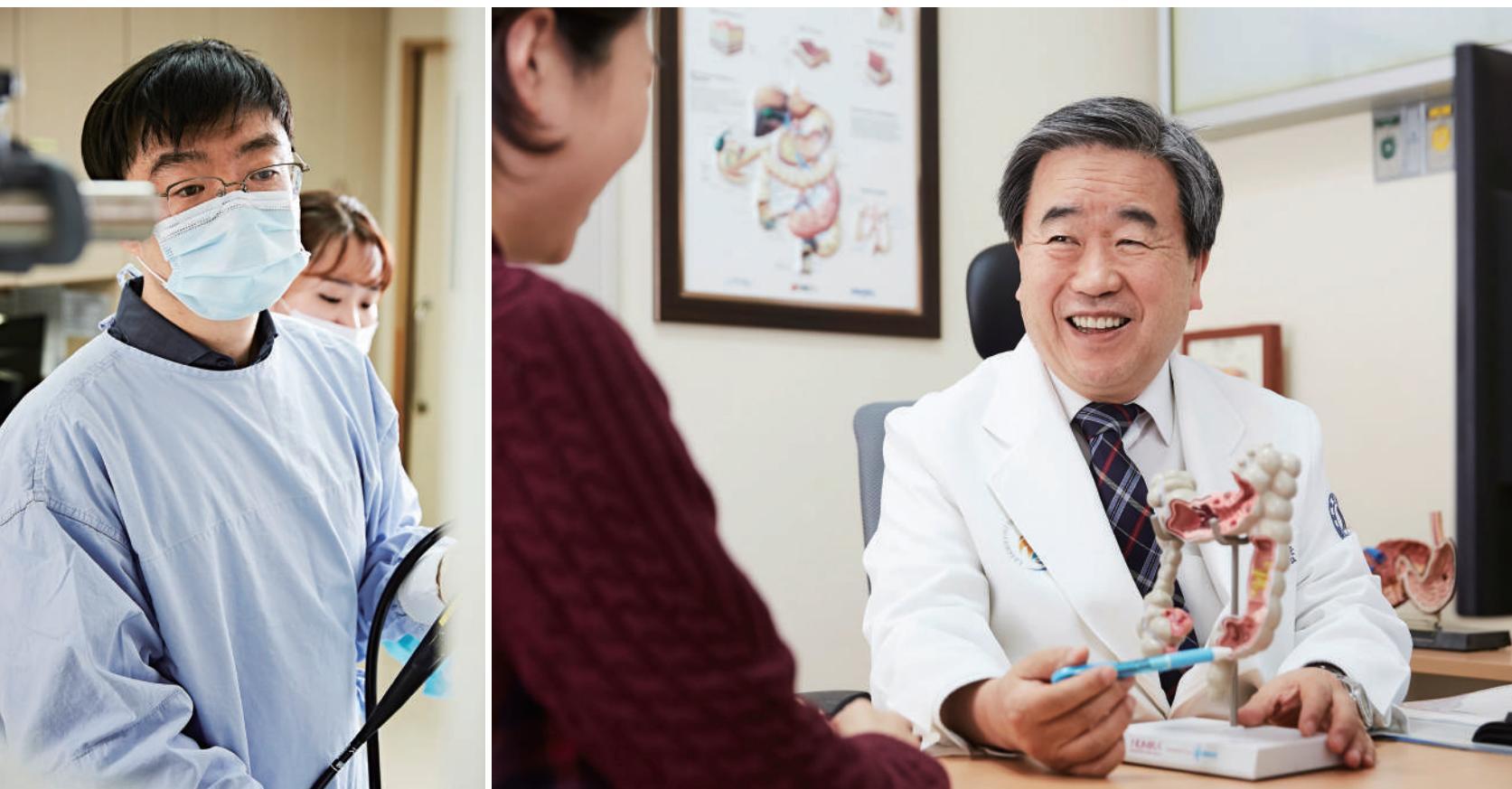
또 병원의 지원을 비롯해 여러 임상의사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환자 입장에서 신속한 진료 및 검사를 통해 빠른 진단을 하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병원 직원은 다소 힘들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 당일 내시경검사, 당일 설명, 당일 치료 및 투약 등 진료 스피드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화기 질환을 진료하며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나요?

1년 전에 대변세균종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보낸 편지가 기억납니다. 1년간 하루 10회 이상 계속된 설사로 수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고생했던 위막성대장염 환자입니다. 저를 만나 대변이식을 받은 후 질병을 완치 받고 정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1년 동안 아무도 이런 치료 방법을 권유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는 감사편지를 받아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 개소 관련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람에서 장내세균의 균형이 붕괴되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체마이크로바이옴(장내세균)의 구성은 신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균집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섭취, 생활방식, 위생상태, 약물(항생제 등) 복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은 인체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식생활, 운동, 적절한 휴식, 스트레스 해소, 약물의 절제적 사용 등 외부 요인을 줄여 장내세균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유지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 키드의 아카데미 정복기

<플란더스의 개>에서 <기생충>까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의 3대 핵심인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차지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랍고 기쁜 소식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 봉준호,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소감 -

새 봄을 맞아 상큼한 첫사랑 영화를 다루어볼까 싶어 〈건축학 개론〉과 몇 가지 영화를 뒤적이며 원고를 준비하던 중,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봉준호 감독 소식이 들려왔다. 가끔 한국에 기회를 주는 간,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는 아직까지 먼 세상이자 철옹성이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의 3대 핵심인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단번에 차지한 것은 놀랍고 대단한 소식이다. 아카데미도 놀랐을 것이다. 첫사랑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호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본다.

봉준호의 첫 영화 <플란더스의 개>

1969년생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이다. 우리나라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컫는 아버지 봉상균 씨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로 유명한 외할아버지 박태원 씨로부터 예술적 자질을 물려받았다. 안경을 쓴 외모는 외할아버지 쪽을 빼다 박았다. 연세대 사회학과(88학번)를 다니는 동안 동아리 활동으로 〈백색인〉(93)을 만들었다. 졸업 후, 12세 때 세운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94년 한국 영화 아카데미(KAFA) 11기에 들어간다. 32세가 되는 2000년 <플란더스의 개>로 장편영화를 데뷔하고 3년마다 자신의 영화를 세상에 내놓는다.

<플란더스의 개>는 서민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연쇄 강아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교수 지망 무직자, 고졸 경리직원, 아파트 관리인, 노숙자, 독거노인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다.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내어 관객을 몰입시키는 숨씨는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꾼적 자질을 보여준다. 흥행은 참패했지만 열광적 지지자들을 확보한 이 영화는 이

후 변주될 봉준호 감독의 특성을 보여준다.

봉준호 감독은 공간을 사용해 스토리에 생동감을 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관객들은 지하실과 옥상으로 교차하는 상하이동과 옛날 복도식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수평 이동을 쫓아다니며 소소하고 평면적인 이야기를 3차원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한다. 〈살인의 추억〉과 〈괴물〉을 거쳐 〈기생충〉에서 완성되는 지하실 미학과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개그와 호러를, 잔혹과 웃음을 혼합하는 그의 특징도 이미 이 영화에서 나타난다. 아파트 경비원을 연기한 변희봉의 3분짜리 보일러 귀신 이야기 장면은 봉준호식 호러 유머의 백미다. 유머 든 슬픔이든 그것을 호러와 그로테스크로, 또는 그 반대로 비틀어 관객을 흔들어버린다. 봉준호 감독 자신이 장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봉준호의 이름을 알린 <살인의 추억>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은 <살인의 추억>(2003)이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이 영화는 〈날 보러 와요〉(김광림 원작)라는 대학로 연극의 각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영화의 완성도가 원작 희곡에 빛진 바가 많다는 평이다. 영화 초반, 살해 현장에 도착한 박두만 형사(송강호)를 따라가는 2분짜리 논두렁 롱테이크 장면은 이 영화의 완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성군에서 촬영했는데, 그날 촬영 현장을 구경한 주민들이 “영화감독은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 장면을 꼭 찾아보기 바란다. 점점 집착에 빠져가는 두 형사와 엽기적인 세 용의자의 펄펄뛰는 캐릭터와 이야기에 빠져 감독이나 관객이나 한동안 범인 찾는 일을 잊어버린다. 예외 없이 지하실 공간이 세상을 왜곡하고 뒤틀는 중심 공간으로 나온다. <살인의 추억>의 영화적 장르 혼합성과 입체적 캐릭터가 보여주는 드라마성은 그해 봉준호 감독에게 대한민국 영화대상과 대종상 작품상을 안겨주었다.



<플란더스의 개>(2000). 32세 약관 봉준호 감독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공간을 다루는 감각이 그대로 드러난 첫 장편 대뷔작.



<살인의 추억>(2003).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 연쇄 살인 범을 추적하는 두 형사와 세 용의자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 일들을 풀어나간다. 그해 대한민국 영화대상과 대종상 작품상을 받았다.

천만 관객이 만난 〈괴물〉

2006년에는 한국 최초의 괴물 블록버스터 영화를 내놓는다. 인간이 흘려보낸 유독물질로 돌연변이가 된 괴물이 한강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봉준호 감독은 제작비를 110억 원이나 들인 이 영화에서 괴물을 퇴치하는 역할에 여느 영화처럼 멋진 영웅을 쓰지 않고 한강 둔치에서 술과 주전부리를 파는 박 씨 일가로 설정한다. 박 씨 일가는 순박하지만, 착한 사람들도,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봉 감독은 대학 시절 농활에서 본 시골사람들을 모델로 했다고 회술한다. 국민이 죽어 나가지만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평계로 괴물을 잡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을 잡는다. 괴물이 출몰하는 현장에는 데모대가 나타나 경찰과 맞선다. 사람들이 벌이는 난장판 속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더 가까운 괴물은 본능대로 열심히 먹이를 모은다. 납치된 소녀를 구하려 나서는 것은 할아버지와 바보 아빠와 삼촌과 고모다. 재난을 코미디로 만드는 봉준호식의 비틀기가 여기서도 발휘된다. 〈괴물〉은 블랙 코미디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영화는 천만 관객을 모았다.

해외의 관심을 끈 영화 〈마더〉

2008년에는 도쿄로 날아가 〈퐁네프의 연인〉(1991)의 레오 카락스와 〈이터널 선샤인〉(2004)의 미셸 공드리와 함께 〈도쿄!〉라는 옴니버스를 만든다. 두 남녀 히키코모리(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가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주 부리지 않고 잔잔히 다룬 봉준호의 에피소드는 도쿄에 나타난 광인을 다룬 레오 카락스와 사람이 점점 물건으로 변해가는 미셸 공드리의 에피소드를 멋지게 만든다. 이때만 해도 걸출한 두 감독과 메가폰을 나눠 잡을 인지도가 아닌 봉준호 감독은 전혀 밀리지 않는 힘 있는 연출을 보여준다.

〈마더〉(2009)는 그의 최고 작품이다. 꼭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스포일러를 피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영화의 도



〈마더〉(2009). 가장 멀 알려진 최고의 작품. 당황스러운 도입부와 충격적인 반전, 전설적 연기, 초현실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엔딩곡.

입부는 당황스럽다. 모자(김혜자와 원빈)의 연기는 완벽하다. 스토리와 캐릭터의 묘사력은 완전히 무르익었고, 〈살인의 추억〉에서 각성한 미장센은 이 영화에서 완성된다. 마지막 반전은 기습을 무너뜨린다. 이병우가 작곡한 라틴풍 엔딩 음악은 역광 속의 관광버스 춤과 괴이하게 어우러져 이전에 보지 못한 갑작적 충격을 준다.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 센스〉 이후 반전은 한 장르가 되었다. 〈디 아더스〉(2001,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나 〈드림 하우스〉(2011, 짐 쉐리дан) 같은 영화는 이 장르에서 최고다. 그런데 〈마더〉는 반전 영화라고 표방하지 않고도 이들 영화들을 무시하듯 역대급 반전을 선사한다. 칸은 이 영화를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작으로 부른다.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오른 첫 영화다.

표현주의 영화의 수작 〈설국열차〉

‘설국열차’(2013)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로 만든 메이저 영화다. 감독이 우연히 홍대 앞 만화 가게에서 발견한 프랑스 만화 「설국열차(Le Transperceneige)」를 보고 1년간 각본 작업을 해 만든 영화다. 인류가 전멸한 빙하기에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을 태우고 끝없이 순환하는 100칸 설국열차의 이야기를 다룬다. 열차는 앞 칸의 부유한 상류층, 꼬리 칸의 모든 걸 통제당하는 하류층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꼬리 칸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반란을 시작한다. 〈설국 열차〉는 ‘계급 간 갈등’을 주제로 던진다. 주 이동선을 상하에서 수평으로 바꾸고, 열차 뒤 칸에서 앞 칸으로 이동을 통해 계급 간 투쟁을 상징화한다.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지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알레고리로 받아들인다면 〈메트로폴리스〉(1927, 프리츠 랑)에 비견할 표현주의 영화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봉준호의 영화 중 최고라 할 수는 없지만, 영화의 전당에 이름을 남길 만하다.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어 깐 〈기생충〉

2017년 만든 〈옥자〉는 넷플릭스를 통해 발표한다. 이 영화



〈설국열차〉(2013). 프랑스 원작만화를 다듬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메이저 영화. ‘계급 간 갈등’을 열차 속 생존자의 수평이동이라는 알레고리로 표현한 영화. 호불호가 갈린다.



〈기생충〉(2019). 반지하방, 상류층 저택과 지하밀실을 오가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습을 그린 영화. 악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피해자는 있지만 기해자는 없다.

기생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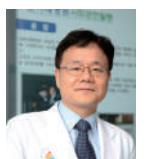
출처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voakorea> Newsletter: voa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개를 수상하면서 92년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은 우리뿐 아니라 아카데미에도 하나의 역사였다.

를 봉준호 감독의 시행착오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라며 수작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한국적인 것은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법이다. 그리고 2019년 〈기생충〉을 발표한다. 〈기생충〉은 반지하 집과 상류층 저택, 지하 밀실을 오가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간 모습을 그린다. 봉준호는 이 영화에서 계층에 대한 흑백주의적 고정관념을 비틀어 깐다. 아래 공간에 사는 자는 비열하지만 불쌍하고, 위 공간에 사는 자는 순박하지만 인정머리 없다. 파국으로 끝나지만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피해자는 있지만 기해자는 없다. 감독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그런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시상 소감에서 자신을 만든 것은 마틴 스콜리지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이라면서 스콜리지 감독에 대한 기립 박수를 유도했다. 영화 같은 감동을 유도하는 그를 보면서 녹록지 않은 연출력을 짐작할 수 있다. 텍사스 전기톱 이야기를 꺼내고 스콜리지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그는 자신이 90년대 작가주의 영화 사조에서 기초를 닦은 할리우드 키드임을 고백한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 라이어』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성공에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우연한 환경과 사회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감독들은 유독 60년대 생이 많다. 홍상수, 김기덕, 박찬욱, 그리고 마지막 60년대 생의 막내 봉준호 감독이 그렇다.

60년대 생은 홍콩 영화보다 못한 한국 영화 속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동경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개방 정책으로 풍부한 해외 예술 영화를 접하면서 작가주의 영화를 알게 되고, ‘오즈 앤스저로’와 ‘쿠로사와 아기라’ 같은 감독을 배출한 일본을 질투했다. 이장호, 배창호 감독이 한국 영화의 명맥을 이어 나갔고, 임권택 감독이 우리 영화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미국 배급사가 진출하면서 미국과 같은 개봉 일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곧 퀀터제를 둘러싼 소용돌이를 겪었다. 학생 운동이 시들해지면서 젊은 논객들은 ‘카이에 뒤 시네마’ 문체를 모방하며 영화 평론으로 몰려들었고, 충무로는 도제주의에서 상업주의와 작가주의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한국 영화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눈다는 〈쉬리〉의 성공을 목도했다.

소설가나 시인을 지망하던 젊은이들이 영화감독이나 평론가로 꿈을 옮기던 80년대 대학 캠퍼스는 봉준호와 같은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세대의 꿈을 이룬 봉준호 감독에게 경의를 표한다.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챕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연둣빛 봄나물, 새로운 봄의 맛

새봄이 오면 산이나 들에 연둣빛 새싹이 돋아난다.
아삭아삭 향긋한 봄나물은 맛은 물론 영양이 풍부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동·돌나물·참나물·
냉이 등 익숙한 봄나물로 새로운 요리를 만나보자.
허끌로 유람하는 봄날의 여행.



봄나물 오일 파스타

재료(2인 기준) 스파게티면 150g, 올리브유 약간, 저민 마늘 3쪽, 냉이페스토 3큰술 **냉이페스토** 볶은 잣 3큰술, 냉이, 마늘 1톨, 올리브오일 200ml, 파마산치즈 1/2컵, 통후추소금 약간, 그라노파다노 치즈 약간

만들기 ① 믹서에 냉이페스토 재료를 넣고 갈아준다. ② 물을 끓인 후 소금을 조금 넣고 스파게티면을 삶는다. ③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저민 마늘을 넣어 노릇하게 익혀준 후 면을 넣는다. ④ 냉이페스토를 넣고 면수로 농도를 맞춘다. ⑤ 그릇에 담아낸 후 그라노파다노 치즈를 갈아 뿌려낸다.

봄나물 피자

재료(2인 기준) 봄동·돌나물·참나물 한줌씩, 시판용 피자도우 1개, 올리브 3알, 방울토마토 5개, 생모차렐라치즈 1/2개, 견과류 약간, 냉이페스토 3큰술(봄나물 파스타 참고), 토마토소스 4큰술

소스 사워크림 3큰술, 레몬즙 1큰술, 겨자냉이 1작은술, 꿀 1큰술, 소금·후추 약간
드레싱 올리브유 3큰술, 발사믹 1큰술, 다진 양파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꿀 2작은술, 쇠초 2작은술, 소금·후추 약간

만들기 ① 올리브는 슬라이스하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놓는다. ② 시판용 피자도우 위에 냉이페스토를 고루 펴바르고 180°C 오븐에 10분 정도 굽는다. ③ 드레싱 재료를 섞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봄나물에 드레싱을 바무린다. ④ 소스 재료를 섞어 도우에 바른다. ⑤ 소스를 바른 도우 위에 바무린 봄나물을 얹고 올리브, 방울토마토, 생모차렐라치즈를 올려 냈다.





캠핑카 타고 뉴질랜드

1— 남섬의 하이라이트, 마운트 쿡으로 향하는 길
2— 후커밸리 트랙 입구에서 만나는 추모비



여행 옆에 '자제'라는 단어가 붙어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은 없다. 문명의 이기,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숨어들고 싶은 때, 지구에서 가장 청정한 나라가 떠올랐다. 뉴질랜드 이야기다.

대자연의 품으로 숨어들고 싶을 때

뉴질랜드는 깊은 땅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지구촌 이슈의 한쪽 면을 장식할 법한 지구과학 교과서 속 장면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난다. 불과 몇 년 전에 너비만 무려 650여 미터에 달하는 얼음 덩어리가 마운트 쿡(Mt. Cook)의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광경이 뉴스의 지면을 장식한 곳. 하와이, 필리핀 등과 함께 화산 폭발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는 섬이다. 거친 야생의 에너지로 충만한 뉴질랜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대기 오염이 가장 적은 국가' 1위로 꼽을 만큼 깨끗한 공기로 유명하다. 'NEW ZEALAND AIR : Breath ezy'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산소통은 중국에서 무려 35불 가까운 가격에 판매된다. 인류가 가장 '늦게' 발견한 섬이자, 호주 대륙, 태평양의 주변 섬들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고립된 지리적 조건, 낮은 인구 밀도, 국가와 국민의 높은 자연보호 의식 등이 이 나라를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만들어준 요인.

이 청정한 자연의 은총을 가장 깊숙이 느끼는 방법은 '캠핑'이다. 캠핑카를 타고 뉴질랜드 남섬을 종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전기 공급, 주방,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 '홀리데이 파크'가 목 좋은 곳마다 위치한 것도 캠퍼를 유혹하는 요소. 텐트를 치고 장비를 다루는 재능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3, 4성급 수준의 롯지들이 도시 한복판, 산, 바다, 호수의 노른자 부위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약 일주일 동안 우리의 발이 되어줄 캠핑카를 픽업했다. 첫 행선지는 남섬 서던 알프스의 최고봉, 마운트 쿡이다.

아오라키 마운트 쿡으로

광활한 캔터베리 평원 위. 뉴질랜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산악인,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Percival Hillary) 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곧 도착할 산이 그의 '연습장'이라고 해서. 연습용 산이라니, 마운트 쿡이(적어도 '산 좀 탄다'고 하는 등산인에게) 꽤 만만한 산인가? 해발고도 3754미터. 차를 타고 오를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았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나 페루의 마추피추에서도 그랬으니까. 순전한 착각이었다. 높이만이 이 산의 위



3



4



5

3—남섬 곳곳에서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4—밀포드 사운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크루즈

5—석회 성분이 녹아 만들어진 밀키블루빛 빙하호

용을 드러내는 지표는 아니다. 백과사전에선 '험준한 고산 베테랑 산악인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산'으로 정의한다. 산세가 날카롭고 바람이 강한데다가 곳곳에서 빙하가 녹아내려 제대로 발을 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거의 매년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후커밸리(Hooker Valley) 트랙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무수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Alpine memorial가 있다.

오를 수 없다면 왜 가는 거지? 회의가 몰려들 무렵, 다행히 '굿 뉴스'를 발견했다. 오르지 않아도 마운트 쿡을 만날 방법이 있다. 두르는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이다. 8개의 트레일 안에는 30분 이내의 가벼운 평지 산책로 'WALK'부터 북악산을 가볍게 오르내릴 정도의 체력만 있다면 들어설 수 있는 'ROUTE'까지 체력과 취향, 시간에 맞는 다양 한 길이 있다.

후커밸리 트랙은 마운트 쿡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길이다. 마운트 쿡 빌리지 센터에서 출발해 3시간 이내에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로, 아오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길이다. 이곳에서 할 일은 빙하가 알고 있다. 후커강(Hooker R.)을 옆에 두고 후커 빙하 호수가 나올 때까지 그저 전진하면 된다. 마운트 쿡 꼭대기에 걸쳐진 태즈먼 빙하(Tasman Glacier)를 바라보며 한 시간 반쯤 걸었다. 빙하가 녹은 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진 후커밸리 빙하 호수는 지구과학책에서나 볼

여행작가 류진은 글로벌 라이프스 타일 매거진『더트래블러』, 패션 매거진『코스모폴리탄』 등에서 일하며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유행의 흐름을 붙잡아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지지면 악생의 대 자연으로 도망친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글로 쓴다.

법한 '터미널 레이크'의 전형을 띠었다. 지형보다 더 신비로운 건 물빛. 암벽의 석회성분이 짙은 갈색의 물을 밀키블루 색으로 만든다. 물결도 저수지만큼이나 잔잔해서 많은 사람이 카약을 즐긴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서 배 위에 몸을 싣기로 했다. 물과 친하지 않아도, 수영을 못해도, 빙하호는 인간을 털끝만큼도 위협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물에 매혹돼서 손바가지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굳이 따라 하진 않았지만 빙하의 청순한 자태에 넋을 내려놓았다.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가 그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모두를 휘감았다. 눈과 마음이 씻긴 기분이었다. 첫날부터 면길을 날아 뉴질랜드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이로운 밀포드 사운드

뉴질랜드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는 캠퍼라면 여정에서 밀포드 사운드Milford Sound를 빼놓지 않는다. 밀포드 사운드는『정글북』을 쓴 영국 출신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로 묘사할 만큼 경이로운 풍광을 가진 곳이자 1만 2천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영겁의 세월 동안 깎고 다듬은 피오르fiord 협곡에 붙은 이름이다. 퀸스타운에 있는 허리데이 파크에서 밤을 난 후,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오직 피오르를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만 들고 나는 94번 도로는 빙하가 산을 깎아 만든 조각품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수직으로 치솟은 1800여 미터 높이의 절벽 사이를 달리는 내내 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P.)의 둥그런 하프 돔(Half Dom)이 다정한 '마더 네이처' 같다면, 이 험준한 빙하 협곡은 금방이라도 캠핑카 위로 바위들이 굴러 떨어질 듯한, 자비 없는 저승길처럼 거친 느낌이다. 피오르 로드를 달리는 여정 자체가 오늘의 목적이지만 도로의 끝, 태즈만해의 항구에서 차를 세웠다. 밀포드 사운드의 지형



6

6—94번 도로 위에선 말과 양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목가적인 풍경과 조우할 수 있다.

7—대자연을 1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홀리데이 파크

8—마운트 쿠으로 향하는 길에 만나는 작은 교회. 주로 결혼식을 할 때 사용되는 웨딩 차플이다.

9—아오라키 마운트 쿠의 정상. 태즈먼 빙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후커 밸리 트랙



9



7



8

적 특질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크루즈를 타는 것이 차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태즈만해Tasman Sea로 향하는 배 위에선 피오르의 맨 얼굴과 만날 수 있다.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때가 밀포드 사운드의 절정. 폭풍우라도 치는 날엔 거친 해풍이 비좁은 협곡 사이로 휘몰아쳐 바닷물이 치솟는 듯한, 그래서 폭포가 역류하는 것 같은 장관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해가 너무 짹쨍해서 장관도, 남들 다 본다는 돌고래도 못봤지만 이 은밀한 땅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찼다. 태평양에 떠 있는 모든 섬을 이 잡듯 뒤집어 정복한 탐험가 제임스 쿠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만큼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이 고립지는 도시 환경에 찌든 인간에게 묘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단애 절벽을 병풍처럼 두른 피오르 랜드의 유일한 숙박시설 '밀포드 룻지(Milford Lodge)에선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도 된 기분이었다. 야생의 자연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존재가 되는 경험을 갈망한 적이 있다면 밀포드 사운드가 그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을 이뤄줄 것이다. 그날 밤, 룻지의 라운지 벽난로 앞에 앉아 테아나우 호수와 퀸스타운, 동쪽의 끝 더니든까지 사흘을 채울 남은 여정으로 빽빽한 계획표를 접어버리고, 아주 잠깐 이곳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달콤한 상상을 했다.



아무리 바빠도 챙길 건 챙겨요

인하대병원 직원 식당 '인·하우스(INHA·US)'

비쁜 현대인에게 끼니를 챙기는 일은 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하대병원 직원 식당에는 '인·하우스(INHA·US)'라는 테이크아웃(take out) 코너가 있습니다. 여느 평범한 직원 식당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인·하우스(INHA·US)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해보자'라는 뜻으로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응모를 받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직원 복리차원으로 만든 공간, 인·하우스(INHA·US)에는 바쁜 업무로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식사를 거둘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을 위해 선식, 샌드위치, 시리얼, 샐러드 등 간편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곳에서 속을 든든하게 채우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산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의료평가팀

함께 힘을 모으면 더욱 높이 오릅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의 질적 성장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질지표'는 그 일환이다. 이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더욱 노력하겠다는 인하대병원의 의지이기도 하다. '의료질지표' 관련 업무는 의료평가팀에서 담당한다. 의료평가팀의 업무와 고충을 들어보자.

'의료의 질'을 공개하는 진정성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인하대병원의 최우선 가치다. 이는 홈페이지지만 둘러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홈페이지(www.inha.com)에는 특별한 항목이 있다. 바로 '의료질지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이 관리하는 진료지표의 결과다. 지표는 응급의료서비스, 중증질환, 항생제 사용관리, 환자중심성 등 구체적으로 나뉜다. 현재 '의료질지표'를 공개한 병원은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국내에 단 세 곳뿐이다.

'의료질지표' 제작은 의료평가팀에서 담당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은 물론 직원 모두 노력하는 곳이다. 의료평가팀에서는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값으로 제시하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의 질 평가 관련 업무는 의료질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지표 분석 및 결과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국가적 성과보상지불제도 정책 대응 전략 수립 및 원내 실무 개선 등이다. 이밖에 의료평가팀에서는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과 프로세스 개선, 진료성과 지표 관리, 국내외 의료정책 대응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차 의료질지표 공개를 앞두고

인하대병원 ‘의료질지표’는 2019년 4월 처음으로 공개됐다. 가치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의 실현과 인천 지역 대표 대학병원으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실제 결과는 이런 의도에 충분히 부합했다. 특히, 환자의 알 권리와 존중해 진료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적 측면을 점검함으로써 진료 개선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회복을 위한 공익적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안이다.

1차에서는 총 4개 영역 61개 지표를 공개하고, 병원의 진료 결과뿐 아니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가 함께 노력할 부분까지 포함해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다. 곧 2020년 4월 2차 ‘의료질지표’ 공개를 앞두었다. 서영민 팀장은 “2차 의료질지표 공개에서는 인하대병원 진료의 특성과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진과 진료지원 부서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표를 발굴하고 결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1차 지표 공개와 비교해 총 지표 수는 30개 이상 증가하고, 지표의 영역 및 함께 참여하는 부서 역시 확대됐다”고 밝혔다.

완벽한 성과를 위한 완벽한 팀

의료평가팀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평가팀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적정성평가 관리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의 질관리를 위해 시작했다. 당시 인하대병원은 현재의 적정 진료팀과 가치혁신팀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암 평가를 따로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각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되면서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인하대병원에서는 2013년 타 의료기관에 앞서 ‘진료기획팀(현재의 의료 평가팀)’이라는 평가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영역별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전향적 중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질(quality) 평가를 바탕으로 등급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대비해 적정성평가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핵심 지표관리와 진료 결과지표인 재원일수, 약품비 등 진료비지표, 사망비와 같은 통합 지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정책 대응 전략으로 다학제통합진료, 집중영양치료팀, 중환자 전담전문의, 신관증축 지원, 입원의학과 신설 등의 원내 진료 절차 신규 도입 시 기획 및 프로세스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에 이르러 ‘성과보상 지불제도 및 가치 기반 성과’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기존 ‘진료지원실 산하 진료기획팀’에서 ‘의료 평가실 산하 의료평가팀’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에는 적정성평가의 내용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인하대병원의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진료결과지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팀원을 충원해 현재의 팀이 완성됐다.

의료평가팀은 서영민 팀장을 중심으로 전희경 과장, 박주경 과장, 박종숙 과장, 유영미 과장, 전진우 주임 등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된다. 팀원 간 결속력과 돈독한 유대관계는 의료평가팀의 자랑이다. 각자 맡은 업무의 결과가 병원의 평가점수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팀원의 일도 내일처럼 고민하며 업무에 임한다. 서영민 팀장은 “팀이 일하는 방식은 팀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다. 특히, 전문성 강화와 분석 및 통합능력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팀 내 담당업무를 순환해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시로 업무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 등 열린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이 의료평가팀의 업무 성과와 팀원 개인 발전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의료평가팀 서영민 팀장 환자 중심의 가치 있는 진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의료평가팀 전희경 과장 브레인&하트(Brain&Heart)가 되길 희망합니다



간호본부에서 종양전담간호사, 교육수간호사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3월부터 의료평가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 개선과정에서 평가지표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의료평가팀은 평가지표 충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료의 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근거와 신뢰 기반의 지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진료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지표를 관리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의 가치 중심 경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본질인 환자 중심의 가치 있는 진료, 하이밸류 케어(High Value Care)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6년 남짓 의료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위암,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 우회술, 약제급여 등 적정성평가와 적정재원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수 등급을 위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쁨을 나눌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 특성상 관련 팀에 협조 요청을 할 때가 많은데, 언제나 진정성 있게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료평가팀은 인하대 병원의 브레인&하트(Brain & Heart)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의료평가팀 박종숙 과장
향상을 위한 조력자,
협동자입니다



의료평가팀 박주경 과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의료평가팀 유영미 과장
의료질지표는
인하대병원의 노력입니다



의료평가팀 전진우 주임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평가팀에서 폐암, 신생아중환자실, 수혈 등 적정성평가와 사망률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어렵게 진행한 평가 결과 등급이 좋을 때 보람을 느끼지만, 업무를 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평가 결과 향상 방안은 기존의 문제점 파악이 선행돼야 가능한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으로 오해해 회의 약속을 정하거나 외래를 찾아가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 혹은 교수님이 어느 순간 평가 관련 최고의 리더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느낍니다. 단순히 1등을 위한 비판자가 아닌 향상을 위한 조력자, 협동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013년 진료기획팀(현, 의료평가팀) 신설 후 부서를 이동하며 의료평가팀에 합류했습니다. 적정성평가, 사망률 및 재입원률 관리,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중 표준진료지침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병원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신 의료를 근거로 비용·효율적인 진료 과정을 교수님과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이 협의해 완성하는 최상의 진료 과정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평가팀은 평가를 시행하는 부서가 아닌 '함께 평가를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함께 고민하는 부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질평가, 혈액투석, 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와 진료지표공개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근거 기반 계획 수립 및 의사 결정, 정확한 데이터 분석, 관련 부서와의 협업입니다. 인하대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든 의료 질 수준과 환자 안전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지표 결과 공개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질적인 측면의 자발적 점검 기회로 삼아 의료진이 진료 결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인하대병원의 의지입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가 단순히 한 방향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쌍방향 치료가 되고, 더 나아가 환자 안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료평가팀에 합류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업무는 쉽지 않습니다. 폐렴, 중환자실, 마취평가 업무와 CP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며 팀 내 맛집 가이드 역할도 수행중입니다. 적정성평가와 CP 모두 해당 지표를 분석하고, 분석에 대해 피드백과 보완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의료평가팀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진료과 혹은 해당 부서와 의논해야 해결방법이 나오고, 어떤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며 갈등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10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수도권 최초 24시간 치료합니다

인하대병원은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2016년부터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1대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인용 치료기 설치 후 24시간 고압산소치료 체제를 갖추었다.

지역 사회공헌과 대형재난 대비 위한 노력

고압산소치료란 챔버 안에 대기압(해수면 기준) 보다 2~3배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해 다양한 산소를 환자의 몸 속 혈액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저산소증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다. 중증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로 알려져 있다.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1대당 10억 원 가량의 고가 제품에, 전문 의료진 배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쉽게 도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강화와 인천 지역 대표병원으로서 지역 사회공헌, 대형재난 대비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적인 고압산소치료센터 모델

고압산소치료센터의 이상적인 모델은 의료진의 동반 입실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다인용 챔버와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감염 고위험 환자의 격리 치료가 가능한 1인용 챔버를 동시에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인용 치료기 설치를 계기로 인하대병원은 수도권 지역 최초로 이상적인 고압산소치료시설을 보유한 병원이 됐다.

난치성 상처 치료에도 확대 적용 계획

고압산소치료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응급질환 외에도 다양한 난치성 상처치료에 적용된다. 방사선치료 후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궤양, 화상 등 상처 치료에 그 효과를 입증했다. 과거 1인용 챔버만 보유하고 있던 때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치료만으로도 치료 스케줄이 최대치로 찻다.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난치성 상처 환자에게도 고압산소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환자 수뿐 아니라 질환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열 살 맞은 인하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 함께한 시간이 힘이 되기를

'인하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는 인천 지역 최초의 소아당뇨 프로그램이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1월 4일,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진행한 캠프에는 당뇨병 환아 30명을 포함해 봉사자와 준비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당뇨캠프는 소아청소년과·의료진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스포츠과학과 등이 협력해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1월 4일, 병원 강당에서 당뇨병을 앓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10회 인하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를 열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선미 간호사의 후기를 들어보자.



10주년 포토존, 캐리커처 등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돼

당뇨캠프는 인하대병원 이지은 교수,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손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의료분과에서는 음식 속 인슐린 탄수화물비 계산법 교육, 간호분과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슐린 자가 주사법과 지방비대증 예방교육, 영양분과에서는 편의점 식품 속 영양성분 분석 교육, 운동분과에서는 키즈



줌바를 활용한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진행했다. 분과별 교육은 이론과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당뇨 상식을 알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환아들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코미디언 고경환 씨를 초청해 '놀이를 통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강당 외부에 10주년 '포토존'을 만들어 환아와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며 즉석인화를 진행했고, 캐리커처 강사를 초청해 캠프에 참여한 환아와 봉사자에게 '나만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덱스콤 의료기업체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교육과 착용 및 관리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지은 교수는 캠프에 참석한 환아 중 1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외래진료를 진행했다. 이는 5분 진료, 즉 짧은 진료 시 할 수 없던 질문을 하고 관리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호자의 만족감이 높았다.

캠프 동안 보호자는 귀가하거나 자유 시간을 누렸다. 대신 환아는 봉사자가 1대1로 돌보며 캠프 중간 중간 아이들의 컨디션과 혈당체크를 진행했다. 덕분에 모든 환아가 편하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폐회식에서는 10주년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서는 1회부터 현재까지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당뇨캠프는 수료증 수여와 기념촬영으로 7시간 동안 진행한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참여한 환아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다같이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환아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바쁜 외래 업무를 맡으며 처음 진행하는 소아당뇨병 캠프는 부담이었다. 특히 '10주년'이라는 타이틀은 압박이었다. 하지만 잘해내고 싶었다. 기존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특별함을 추가하고 싶어 다른 병원 사례를 많이 찾아보았다. 운영진들은 2019년 7월부터 주기적으로 모여 사전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공유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개월간 참가자 모집과 행사 전 해피콜을 시행으로 행사 당일 참여를 유도했지만, 당일 오지 않은 부도자들이 많아 실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한 많은 환아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힘들었지만 많은 준비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진행할 11회 캠프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다. 또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반납하고 기꺼이 함께한 봉사자와 운영진 덕분에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하고 싶다. 당뇨병은 시간을 갖고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한다. 생활습관을 바꿔 관리해야 하는 만큼 오늘 함께한 시간이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이 되도록 이끄는 인하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

소아 당뇨는(특히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으로 인한 베타세포 손실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찾은 혈당 확인과 평생 적절한 용량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급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혈당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당뇨병은 관리가 중요하고, 잘 관리하려면 당뇨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다.

'인하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질환 정보를 습득하며 관리법을 배울 수 있고, 같은 질환을 앓는 캠퍼들과 교류하며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아청소년이 되도록 이끌어주고자 한다. 캠프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해 다학제로 운영된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⑦

항바이러스제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나날이 확진 환자가 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어떻게 일어나고, 항바이러스제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이러스 관련 궁금증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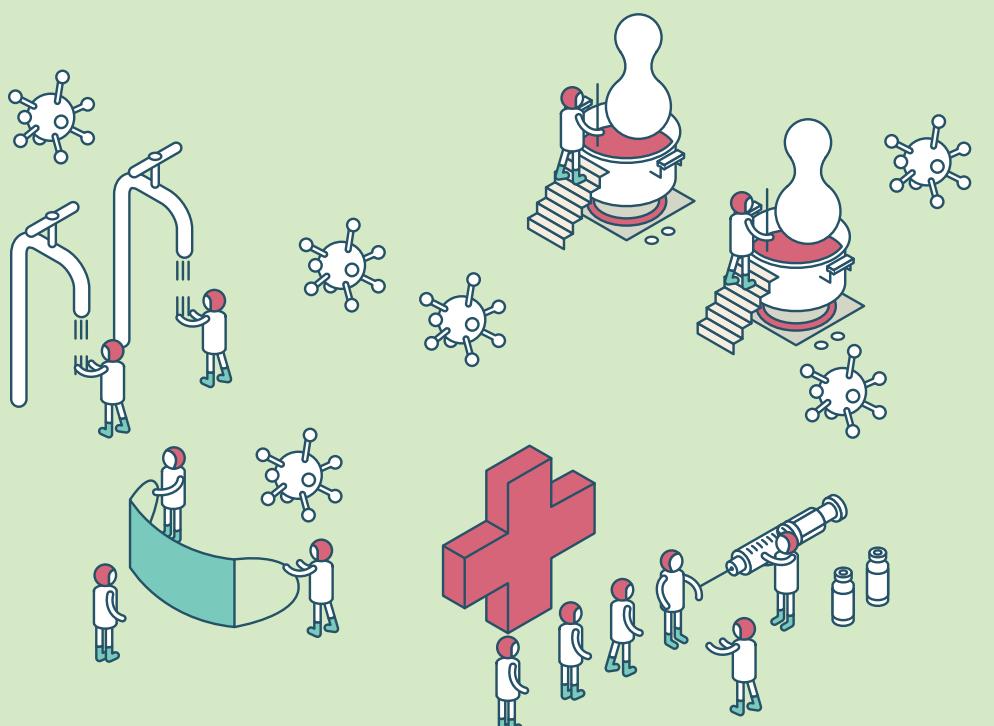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공중보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세포 대사를 이용해 증식하는 절대 의존 미생물로서, 숙주세포를 파괴하거나 변이시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및 유두종바이러스 등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혹은 소멸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치료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며 오직 복제하는 바이러스에만 효과적이고, 휴지기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약리작용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억제제(바이러스의 부착 및 침투를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의 초기 단계를 저해)와 바이러스 증식 저해제(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효소들을 저해해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냄,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로 나눕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치료 대상 질환군에 따라 독감 치료제, 헤르페스 치료제, B형간염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으로 분류하며, 개별 약물에 따라 여러 질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거나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치료 대상 질환과 약물이 매우 다양하므로 부작용 역시 개별 약물에 따라 다양합니다. 항바이러스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부작용은 구역, 구토, 복통, 설사, 무력증, 피로, 두통, 발열 등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또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해 치료 반응 및 부작용을 관찰합니다. 감염질환과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의 종류에 따라 투여 기간이 달립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감염이 불완전하게 치료되어 내성 밀현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복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NHA MEDIA

2019. 11. 14



기고자: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언론사: 쿠키뉴스
주 제: 뇌혈관질환 –
환절기가 위험하다고요?

2019. 12. 5



기고자: 신경외과 윤승환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주 제: 노인성 허리 후만변형
증후군 – 맡은의 삶 점어
버리는 폴더폰 인생

2019. 12. 5



기고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영 교수
언론사: 뉴스핌
주 제: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
우울증 적기에 치료해야

2019. 12. 11



인터뷰: 정형외과 이동주 교수
언론사: 쿠키건강TV
주 제: 손목터널증후군 –
손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

2019. 12. 18



인터뷰: 입원의학과 김정수 교수 외 7명
언론사: 데일리메디
주 제: 국내 최초 입원의학과

2020. 1. 3



기고자: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췌장암 – 조기에 발견 땐
생존율 2배

2020. 1. 8



기고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패스트푸드로 끼니 때우는
당신이 주의해야 할 이 질병

2020. 1. 10



기고자: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의외로 흔한 심방세동,
새로운 치료 대안
'냉각도자절제술'

2020. 1. 20



인터뷰: 응급의학과 백진희 교수 외 4명
언론사: 조선일보
주 제: 10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수도권 최초 24시간
치료 체계

2020. 2. 5



기고자: 외과 이진욱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흉터 없는 갑상샘암 수술,
회복 빨라 바로 일상 복귀
치료 체계

1**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1등급 인증**

인하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인천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인증 받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등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총 11개 지표로 처음 시행됐다. 인하대병원은 2012년 2월 국가정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돼 신생아중환자 치료에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신생아 전문 의료 인력을 투입해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27병상을 운영 중이다.

2**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실시**

인하대병원 임직원이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일대를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에 함께한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가족 등 80여 명은 지역사회 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4,000여 장의 연탄을 나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인하대병원이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에 따라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을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향후 2년간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자(전자사증) 발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외국인 환자는 그동안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예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의료비자 발급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인하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간소한 비자 발급과 진료 등으로 '원-스톱(One-Stop)'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감염병 관리시설 운영관리 분야 평가****장관 표창 수상**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9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관리 분야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방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관리 성과가 뛰어난 의료기관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올해 신설한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자원 동원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6****제17회 QI 학술대회 성료**

함께하는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가치 혁신(Leading the Way to High Value)을 주제로 제17회 QI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업무개선을 이룬 총 28개 팀이 참가해 포스터 발표(13개 팀), 우수사례 구연 발표(9개 팀), 우수지표관리 포스터 발표(3개 팀), 우수 CQI 포스터 발표(3개 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은 장기이식센터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발표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진료부서는 어느 해보다 환자 안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또 인하대병원 협력병원 총 12개 기관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벤치마킹의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9**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협력 대응, 교육과 견학, 연구 등 인적 교류에 관한 지원, 연구 및 의료 시설의 상호 이용과 활동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그동안 감염병 실험실 감시 사업과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실험실 생물 안전사고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10**IPA-굿네이버스 협약**

인하대병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IPA),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와 지역 내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희망등대 지원기금'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하대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미루는 환자를 찾아 치료한다. 인천항만공사는 2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굿네이버스는 인천항만공사가 지원한 진료비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한다.

7**조지아 Aversi 클리닉과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이 Aversi 클리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코카서스 3국 교류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갑상선 수술 분야의 의료진 교육 및 연수 등 상호 학술 교류에 나선다. 인하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국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디지털 협진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산둥성 임기시 인민병원과 원격 학술교류를 이어가는 등 의료시스템의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8**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성료**

인하대병원은 45개 협력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병원 간 상호 협력과 화합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책 임의료기관 운영방안, 로봇수술의 이해, 희귀유전질환 환자를 위한 통합 진료 및 진단 검사,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순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진료 안내 (2020년 3월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형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김영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밸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밸열질환
	권해윤	분만후기 2020.2.21 ~ 2020.5.20
	임자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밸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반내과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해외연수 2019.9.1 ~ 2020.8.31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증강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신경외과 (NSCB) ☎3860 3865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과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간접우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해외연수 2019.8.1 ~ 2020.7.31
	이승훈	관절염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김한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실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판
	윤상민	증양, 결석, 신이식
비뇨의학과 ☎2360	이 택	전립선, 증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증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증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부인과 ☎2270, 2117	김동호	증양학, 복강경
	이병익	증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증양학, 복강경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성형외과 ☎3870	이현현	증양학, 복강경
	장진이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희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톱재건술, 미용수술
최승석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증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예,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해외연수 2020.2.20 ~ 2021.2.19
	김수진	유전성내분비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시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소화기내과 ☎2224	박지선	소아청소년과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벤피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신경과 (NRBC) ☎3860 3865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증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과 (NSCB) ☎3860 3865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내분비 내과 ☎2360, 2215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증강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과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간접우체력증진
신경외과 (NSCB) ☎3860 3865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신경외과 (NRBC) ☎3860 3865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신경외과 (NSCB) ☎3860 3865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증강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신경외과 (NRBC) ☎3860 3865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신경외과 (NSCB) ☎3860 3865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증강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신경외과 (NRBC) ☎3860 3865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증강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아모아병, 뇌혈관기형
신경외과 (NRBC) ☎3860 3865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

암진료 안내 (2020년 3월 10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신운문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외과	최운석	위장관 외과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임주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기타 고형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신운문	대장암, 위암, 유류성 식도암	
대장암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외과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대장암, 직장암, 폐암, 흉선종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암, 경간암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 B형, C형 간염	
간암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인승익	간암, 간이식, 혀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혀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혀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증양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췌담도암	소화기내과	이동행 췌장암, 담도암, 혀장암, 담석증, 치료내시경	
	외과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혀장암,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혀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인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폐암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흉부외과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암, 면역치료	
	남혜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및 충치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폐암, 유방암, 부인암,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폐전이암, 흉선종, 사이버나이프	
혈액암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박지선	혈액암, 혈액질환, 완화의료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수종양	
감상선암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양내과 병리	
	내분비내과	홍성빈 감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외과	김소현 감상선, 내분비, 당뇨	
	이진우	안성희 감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 질환	
외과	정형외과	서다해 감상선암 및 양성질환, 로봇수술, 구강내시경 수술, 유방 양성질환	
	혈액종양내과	최정석 감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비뇨기과	김지원 감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내분비내과	이비인후과 감상선암, 후두암,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768, 3638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김상선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유방암	외과	허민희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이진우	유방성질환, 유방내분비, 갑상선암 및 양성질환
	혈액종양내과	기세희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박지선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부인암	방사선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종양학과	이정심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병리과	박인서	유방병리
	산부인과	김동호	자궁경부암, 난소종양, 자궁체부암
비뇨기암	신부인과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우	황성우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병현	이병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산부인과 종양)
	의료진찾기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혀귀암, 유방암
비뇨기암	간편예약	임주한	부인, 두경부암, 위암, 대장암, 긴암
	진료예약조회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진료시간표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대리결제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두경부암	건강수첩	윤상민	종양, 결석
	전자처방전달	이태ك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종양, 소아
	사용 문의 1661-7551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내 중구 인향로 27 (신흥동 3가 7-206) 전화 032-890-2114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피부암	비뇨기의학과	이문희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피부암	최정석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희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위암, 식도암
피부암	조진현	조진현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폐암, 혈액암
	방사선	김현정	하인두암, 구인두암, 식도암
	종양학과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병리과	박인서	두경부병리
피부암	김원형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김명옥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재활의학과	변자원	부파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피부과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기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경외과	신경외과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생조질환, 홍조, 피부병리
	기세희	기세희	피부암, 혈관암, 유방암, 부인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방사선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뇌·척추증양	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기세희	박현선	사이버나이프 - 뇌종양, 뇌전이암, 두경부암, 두개기저부종양
뇌·척추증양	윤승환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합착증
	류달성	류달성	척추증양, 디스크, 척추관 합착증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뇌척추증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혀귀암
	방사선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근골격증양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암, 척수증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병리과	박인서	병리학
	정형외과	강준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혈액종양내과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건강수첩	권대규	권대규	골육종(8세 이하), 종부 종관절 질환
	임주한	임주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조진현	조진현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방사선종양학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령암, 혈액암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 앱

My 인하 OPEN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인하대 병원
INHA UNIV. HOSPITAL